

편집 및 발행인 : 장영태 ·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 (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)

총괄 : 최나영환 감수 : 길광수 전화번호 : 051-797-4770 · E-mail : chnayoung@kmi.re.kr / kdong@kmi.re.kr

Contents

● 국제물류 통계

- 글로벌 상위 10대 컨테이너 선사, 세계 선복량의 85% 차지
- 태국, 연안해운 이용 확대 통한 운송수단 전환 본격화

● 국제물류 주요 이슈

- DP World, 유럽 내륙물류 네트워크 확대
- 국제물류주선업, 디지털화의 파도타기

● Global SCM 심층분석

- 러시아 자동차 물류, 코로나19 충격 딛고 정상화 '기지개'

● 국제물류 연구동향

- 해상물류 공급사슬협업과 항만성과의 관계

● 공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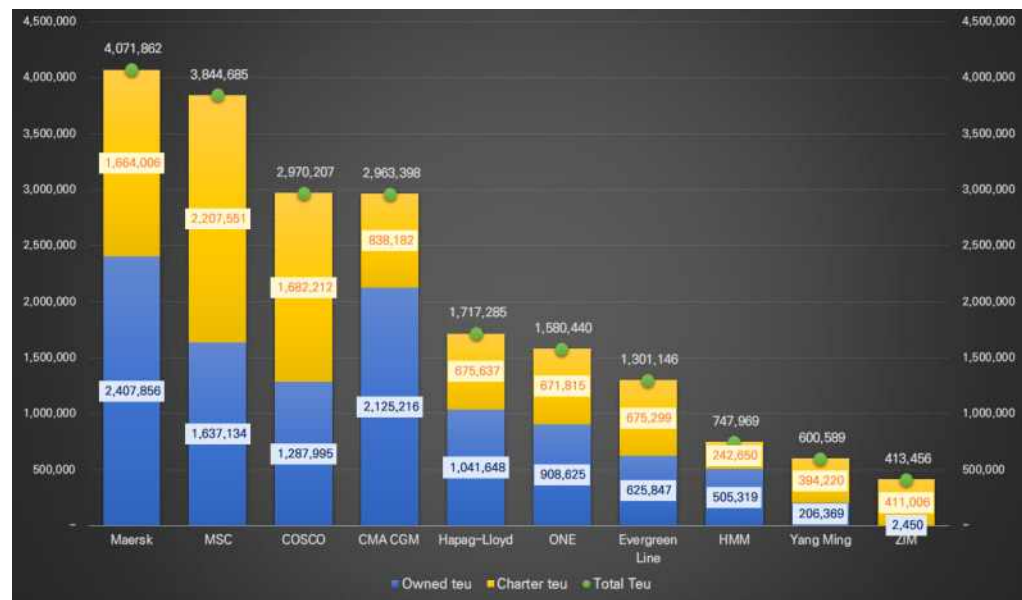
- 2021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



글로벌 상위 10대 컨테이너 선사, 세계 선복량의 85% 차지

글로벌 상위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규모(2021년 4월 기준)

(단위 : TEU)



자료 : Clarksons Research, *Container Intelligence Monthly*, 2021.4.

➤ 2021년 4월 기준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의 총 선박 수는 5,462척, 선복량은 2,386만 TEU임

- 상위 10개사의 선박 수는 3,164척, 선복량은 2,021만 TEU로 선박 수는 전체의 57.9%이나 선복량은 전체의 84.7%를 차지함
- 1위 선사는 선복량 407만 TEU로 전체의 17.1%를 차지한 Maersk이며, 그 다음은 MSC 384만 TEU(16.1%), COSCO 297만 TEU(12.5%), CMA CGM 296만 TEU(12.4%), Hapag-Lloyd 172만 TEU(7.2%) 순임
- 선사의 자사별 보유 비중을 살펴보면 상위 10개사 중 CMA CGM이 71.7%로 가장 높았고, HMM 67.6%, Hapag-Lloyd 60.7%, Maersk 59.1% 순임

글로벌 상위 컨테이너 선사의 평균 선형(2021년 4월 기준)

(단위 : %, TEU)

자료 : Clarksons Research, *Container Intelligence Monthly*, 2021.4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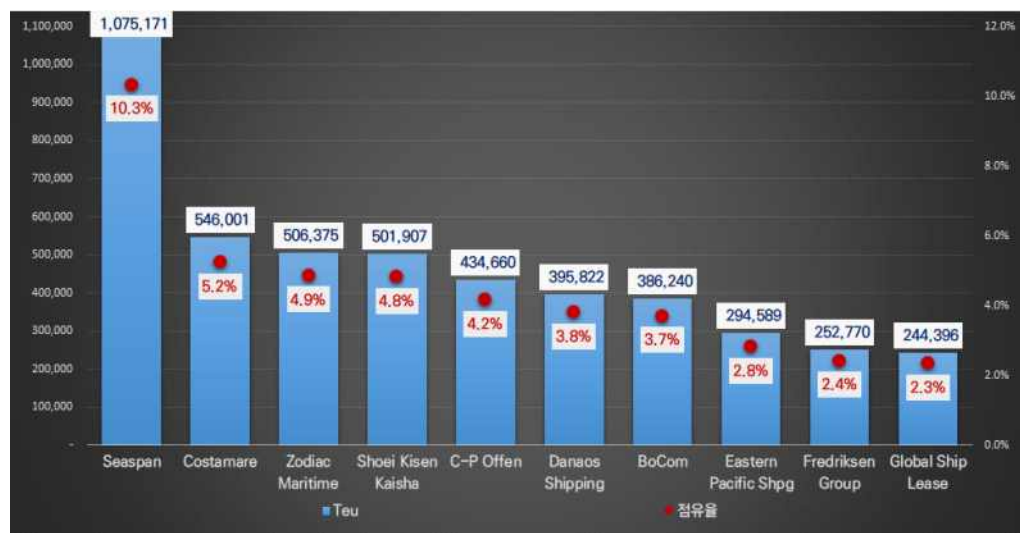
주 : 평균 선형은 총 선복량에서 선박 수는 나눈 값임

- ▶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의 평균 선형은 4,367TEU이고, 상위 10개사의 평균 선형은 6,388TEU임

- 상위 10개 선사의 평균 선형의 경우 HMM社가 10,108TEU로 가장 크며, ONE 7,217TEU, Yang Ming 7,066TEU, Hapag-Lloyd 7,009TEU 순임

글로벌 컨테이너 용선 시장 선주 선복량 규모(2021년 4월 기준)

(단위 : TEU, %)



자료 : Clarksons Research, Container Intelligence Monthly, 2021.4.

➤ 2021년 4월 기준 글로벌 컨테이너 용선 시장 선주의 총 선박 수는 2,471척, 선복량은 1,041만 TEU임

- 상위 10개사의 선박 수는 567척, 선복량은 464만 TEU로 선박 수는 전체의 22.9%이나 선복량은 전체의 44.6% 수준임
- 1위 선주는 선복량 108만 TEU로 전체의 10.3%를 차지한 Seaspan이며, 그 다음은 Costamare 55만 TEU(5.2%), Zodiac Maritime 51만 TEU(4.9%), Shoei Kisen Kaisha 50만 TEU(4.8%), C-P Offen 43만 TEU(4.2%) 순임

참고자료 : Clarksons Research, Container Intelligence Monthly, 2021.4.

최나영환 부연구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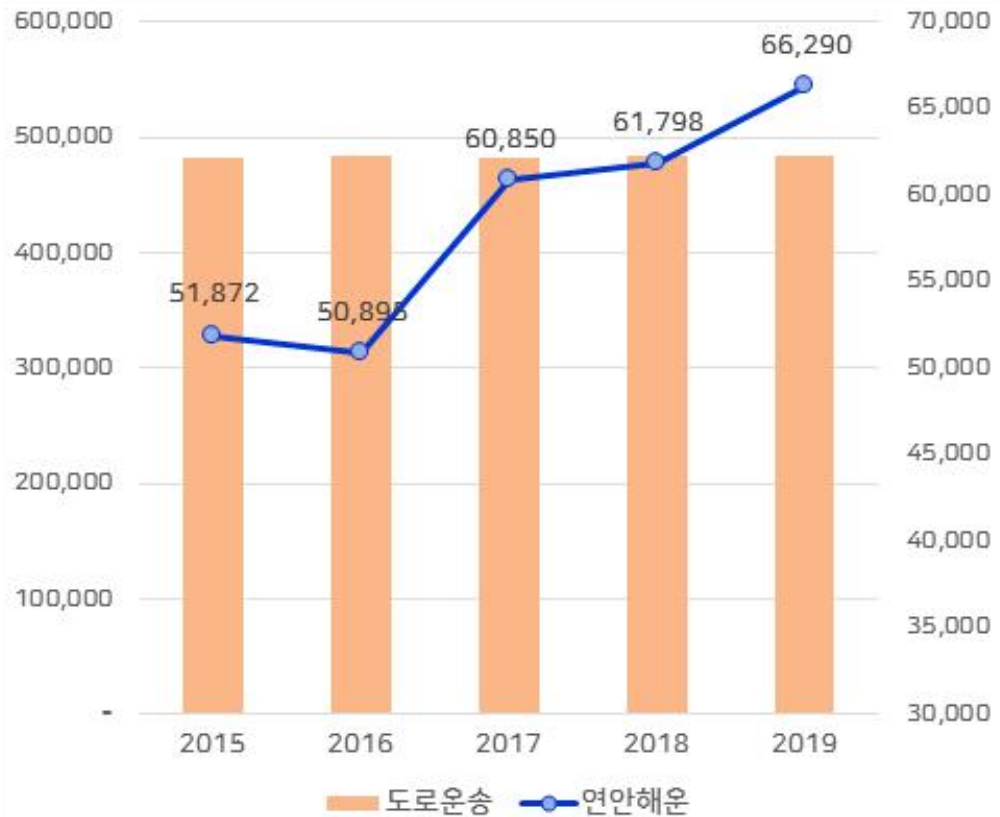
051-797-4770, chnayoung@kmi.re.kr

태국, 연안해운 이용 확대 통한 운송수단 전환 본격화

- ▶ 태국 정부는 교통혼잡 완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연안해운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, 이에 연안해운 물동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
 - 태국 내 도로운송의 비중은 약 80%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, 화물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발생 및 물류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
 - 이에 태국 정부는 운송수단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연안해운 이용 확대를 추진 중이며, 연안해운 물동량을 점차 늘려가고 있음
 - 최근 5년간 연안해운 물동량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(약 5,100만 톤), 2017년(약 6,000만 톤), 2019년(약 6,600만 톤)에는 '15년 대비 28%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확대됨
 - 반면에 도로운송 물동량은 2015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등 운송수단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

태국 물류시장 내 도로운송 및 연안해운 물동량 변화(2015~2019년)

(단위 : 천 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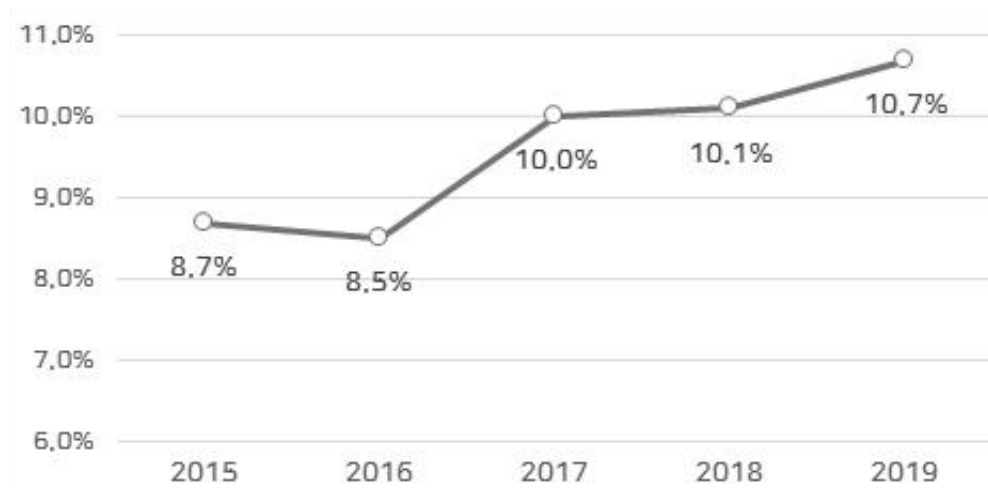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NESDC, Thailand's Logistics Report 2019, 2019.8.

● 연안해운을 이용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 국내물동량의 연안해운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, 2017년 10%를 돌파함

- 연안해운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(8.7%), 2017년(10%), 2019년(10.7%)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,
- 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운송수단 전환 정책이 일정 수준 성공적으로 수행 중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, 비용 및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연안해운 이용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태국 국내물동량 중 연안해운 비중 변화(2015~2019년)



자료 : NESDC, *Thailand's Logistics Report 2019*, 2019.8.

참고자료 : NESDC, *Thailand's Logistics Report 2019*, 2019.8.

DP World, 유럽 내륙물류 네트워크 확대

- DP World는 계열사인 스위스터미널(Swissterminal)을 통해 프랑스 북부 알자스 지방에 위치한 3개의 주요 항만을 추가하면서 유럽 내륙물류 네트워크를 크게 확장함
 - 이달 초, 공공 기관인 Syndicat Mixte des Ports du Sud Alsace(SMO)는 SMO, the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, Alsaceteam로 구성된 민관협력사(Public-Private Partnership, PPP)에 뮐루즈-항(Ports de Mulhouse-Rhin) 항만의 양허 계약을 체결함
 - Alsaceteam은 스위스 터미널과 두 개의 프랑스 항만인 Grand Port Maritime de Marseille와 Haropa Port du Havre의 JV임
 - 2021년 Swissterminal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Alsaceterminal가 내부위임계약을 통해 Ottmarsheim, Huningue-Village-Neuf 및 Ile Napoléon 3개의 프랑스 항만에 대한 운영권한을 위임받음

DP World 유럽 내륙물류 네트워크 현황



자료: <https://www.dpworld.com/news/releases/dp-world-expands-european-inland-network-through-swissterminal-tender-success-to-operate-three-alsace-ports/> (검색일: 2021.5.25.)

- DP World는 유럽 내륙물류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고객에게 더 넓은 지리적 범위, 더 많은 운송 솔루션 및 연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발표를 함
 - DP World는 유럽 전역에 이미 방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화학, 금속, 식품 가공 및 건설과 같은 수 많은 산업에서 경제적 중요성을 지닌 프랑스, 스위스, 독일 삼각 지역의 교통 연결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됨
 - 새롭게 시행될 새로운 철도 연결은 두 개의 주요 프랑스 항만인 Le Havre와 Marseille-Fos로 연결될 것이며, 가장 큰 북유럽 항만인 로테르담항과 앤트워프항의 내륙 운송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
 - DP World의 유럽 및 러시아 내륙 및 물류 부사장에 따르면 내륙물류는 운송의 한 부문으로서 더 많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바지선 및 철도와 같은 보다 지속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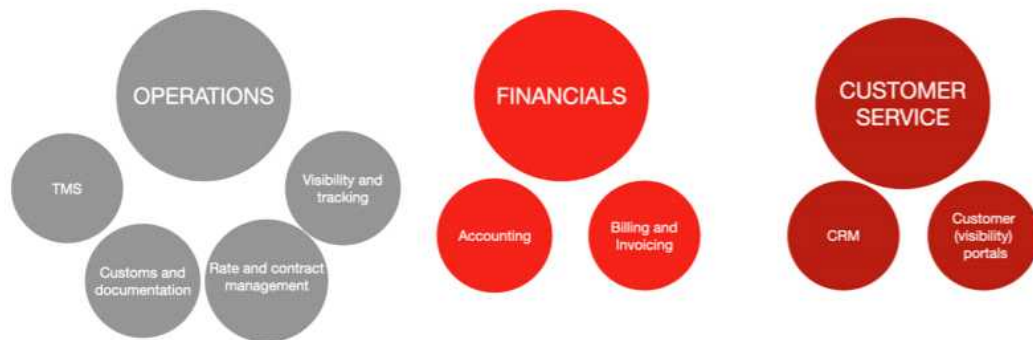
- 한 내륙 운송 방법을 통해 탄소배출 감소에도 기여하고자 함
- 또한 Swissterminal과 파트너는 공급망 전반, 특히 국경 삼각 지역 내에서 유럽 내 운송 연결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동시에 DP World는 더 넓은 유럽 및 글로벌 네트워크,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음

국제물류주선업, 디지털화의 파도타기

- 해운물류 분야에서도 더 나은 고객경험을 요구하는 추세로 인해 물류주선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음
- 글로벌 디지털 화물 시장에 대한 투자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물류주선 업계에서는 적기에 기존 시스템을 교체하지 못할 경우 매우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
 - 디지털화가 물류주선업 시장을 휩쓸고 있는 시기에 적응하지 못해 진화와 혁신에 실패할 경우에는 신규 고객 유치는 물론 기존 고객 유지도 어렵게 될 것임
- 물류주선업자가 디지털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류 공급사슬의 가시성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물건의 추적을 어렵게 하여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됨
 - 많은 물류주선업의 경우 아직도 용지를 인쇄해 보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
-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물류주선업에서 화물 운송 소프트웨어(freight forwarding software)를 사용하게 될 경우 장점은 크게 5가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투명성과 가시성 향상(visibility and transparency): 화물 포워딩 소프트웨어는 물류주선업자에게 물류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공급사슬 참여자들과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데이터에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함
- 운영 및 재무적 통제(operational and financial control):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화물 전달자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수행하면서 이익이 되는 요소를 파악해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
- 비용 최적화(cost optimisation):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한 물류 프로세스의 자동화는 고객의 규정 준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프로세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손익분기점(BEP, Break Even Point)과 같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관리하는데 기여함

- 비즈니스 성장(business growth): 화물 포워딩 소프트웨어는 소규모 물류주선업자가 대형 물류주선업자와 훨씬 더 수준 높은 경쟁에서 경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음

화물운송 소프트웨어 모듈의 자동화된 핵심 프로세스



자료: Freight Forwarding Software: Market Map. p.7.

-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화는 물류주선업의 경우에도 급격하게 반영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
- 따라서 이와 같은 시장환경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역량을 잘 판단하고 이에 적합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

자료: Freight Forwarding Software: Market Map. by Ti Senior Analyst, Viki Keckarovska

러시아 자동차 물류, 코로나19 충격 딛고 정상화 '기지개'

- 최근 러시아 '국민 승용차' 라다(Lada, Lada)와 러시아 승합차(경상용차)의 대명사 격인 가즈(GAZ, GAZ)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승합차-승용차 판매가 호조를 이루면서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음
 - 러시아 자동차 전문 뉴스채널 루스오토뉴스닷컴(RusAutoNews.Com)에 따르면, 러시아의 대표적인 승합차 브랜드인 가즈는 지난 4월에만 6,174 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137.8%의 판매 증가세를 보였음
 - 2021년 1~4월 가즈의 누적 판매량은 1만6,741 대이며, 인기 모델은 가젤 넥스트(Gazelle Next)로 동기간 9천 대 이상이 팔림
 - 또한 같은 달 러시아의 국민 승용차로 통하는 라다(압토바즈, АвтоВаз의 대표 브랜드)의 판매량도 1,461대로 전년 동기 대비, 206.9%(476 대)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음
 - 이외에 러시아 브랜드인 우아즈(UAZ, UAZ) 및 미국 브랜드 포드의 판매고 신장에 힘입어 러시아 전체 승합차-승용차의 지난 4월 판매량은 1만 3,739 대(1~4월 누적 4만869 대)로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40%의 판매 신장률을 기록함

러시아의 경상용차 톱-10의 판매 현황('21년 4월)

순위	브랜드명	'21. 4(대)	'20. 4(대)	증감(%)	'21. 1~4(대)	'20. 1~4(대)	증감(%)
1	GAZ	6,174	2,596	137.8	16,741	13,268	26.2
2	Ford	1,764	688	156.4	5,017	3,239	54.9
3	UAZ	1,539	897	71.6	5,769	4,453	29.6
4	라다	1,461	476	206.9	5,141	2,770	85.6
5	푸조	656	114	475.4	1,933	817	136.6
6	폭스바겐	602	214	181.3	1,849	1,458	26.8
7	메르세데스-벤츠	537	154	248.7	1,358	926	46.7
8	시트로엥	353	85	315.3	1,022	601	70.1
9	현대	152	120	26.7	509	873	41.7
10	피아트	135	57	136.8	408	265	54.0
	합계	13,739	5,469	151.2	40,869	29,189	4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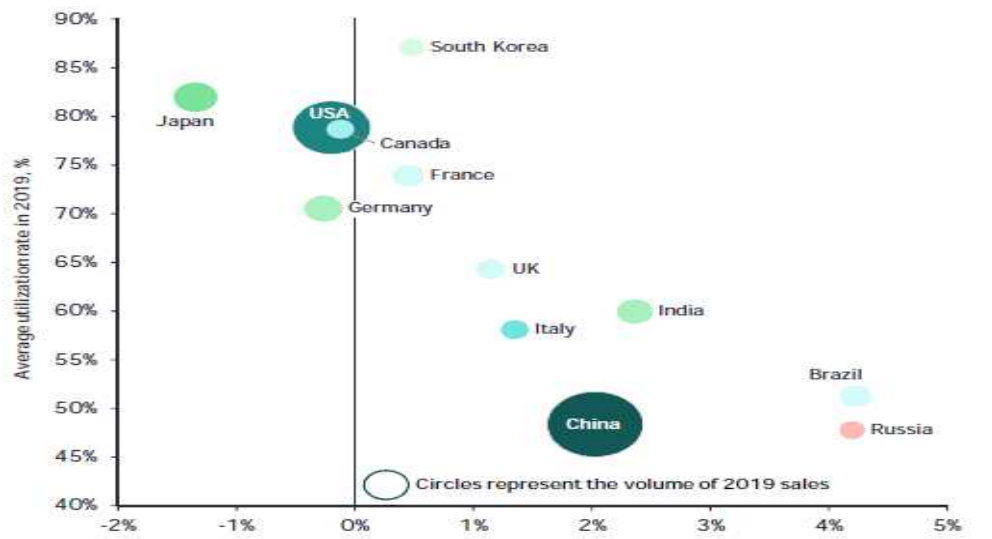
자료: Autostat (RusAutoNews.Com에서 재인용)

- 한편 트럭 시장에서는 러시아 메이커인 카마즈(KAMAZ, KAMAZ)를 필두로 가즈, 스카니아, 마즈(MAZ, MAZ), 만(MAN), 볼보 등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음
 - 스카니아는 스웨덴 브랜드이며 폭스바겐사가 모기업으로, 유럽 트럭시장의 16.2%를 점유함

➤ '19년 기준 러시아는 세계 11위, 유럽 5위의 자동차 시장이며, 202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% 이상의 성장률이 전망된 바 있음

-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은 중국('19년 세계 시장의 25.4%), 미국('19년 세계 시장의 17.2%), 일본('19년 5.1%)이며, 인도와 독일이 그 뒤를 잇고 있음
- 2019년 러시아의 승합차·승용차 판매 대수는 총 1백76만 대였으나,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약 160만 대로 소폭 감소했음¹⁾
-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, 러시아는 2022년 이후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브라질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판매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(EY, 2020. 아래 그림 참조)

주요 국가별 자동차 이용비율 및 자동차 시장 성장률 전망('18~'25)



자료: EY, *The Russian and CIS automotive industry: Current trends and outlook*, March 2020

주: 2019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2025년까지의 전망치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지 않음

➤ 현재 러시아 자동차 내수 시장은 라다, 기아, 현대, 르노, 폭스바겐, 도요타가 시장 점유율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음

- 라다는 현재 시장 점유율 20%를 상회하는 러시아 최대 자동차(승용차) 메이커로 2014년 시장 점유율 16%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오고 있음
-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제2위 메이커는 한국 기업인 기아차로서 2012년 점유율 6%를 기록한 이래 해마다 점유율을 높여 2019년 현재 13%에 이르고 있음

1) 2019년 통계는 EY, "The Russian and CIS automotive industry," March 2020, p.15, 2020년 통계는 Justauto 인터넷판 2021년 1월 18일 자 기사 참조(https://www.just-auto.com/news/russia-december-light-vehicle-sales-down-21_id199693.aspx).

- 한국 기업인 현대차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 3위 기업으로, 점유율 10% 이상의 라다, 기아차와 함께 러시아 자동차 시장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(현대차와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23%로서 1위 기업인 라다의 시장 점유율을 앞지름)
- '21년 1분기 중 최고의 판매 신장률을 보인 차량 모델은 현대솔라리스로 전년 동기간 대비 23.4%의 증가율을 기록함²⁾
- 미국의 포드, GM 및 일본의 혼다자동차 등 경쟁사들은 한국 자동차사의 공세에 밀려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거나 철수를 결정하고 있음
 - 러시아 정보포탈 사이트 바이러시아는 2020년 12월말, 혼다자동차 러시아 법인이 오는 2022년 러시아 딜러들에게 신차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보도했음³⁾
 - 현대차는 2020년 12월 GM의 러시아 공장(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) 인수를 완료했음⁴⁾

주요 메이커별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변화



자료: EY, *The Russian and CIS automotive industry: Current trends and outlook*, March 2020

● 러시아는 승용차/경상용차 부문 및 부품 수출이 성장하면서 인접 지역, 유럽 및 CIS 지역 자동차 시장의 완성차 및 주요 부품 공급지로 부상하고 있음

- 러시아의 자동차 관련 수출 중 가장 큰 부문은 부품 수출로, '19년 기준 러시아 자동차 관련 수출 총액의 44%(약 17억 달러)를 차지함
- 러시아의 자동차 관련 수출 중 두 번째로 큰 부문은 승용차·승합차로 '19년 수출액은 약 16억 달러를

2) 러시아 Autostat 인포그래픽 참조(<https://eng.autostat.ru/news/19975/>)

3) 바이러시아 홈페이지 참조

4) “현대차 해외영토 넓혔다...러시아 GM공장 인수,” 파이낸셜뉴스, 2020. 12. 23 참조(<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012231304151085>)

기록했으나 '20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9,800만 달러로 감소했음⁵⁾

- 러시아 정부는 자국 자동차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 8월 정부령으로 '2025년 자동차 수출 개발 전략'을 수립한 바 있음
 - 동 전략의 목표는 2025년까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액 44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임⁶⁾
 - '20년 6월 러시아 정부는 자국 기업 차량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 공기업(국영기업), 응급차 등의 차량 구입비로 45억 루블(한화 약 687억 원 상당)을 지원키로 결정함⁷⁾

● 러시아산 자동차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체코, 우크라이나, 라트비아 등이며 카자흐스탄이 유망 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음

- '19년 러시아산 자동차의 80% 이상은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으로 수출됨
 - EAEU 협정에 의해 향후 카자흐스탄이 유력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⁸⁾
- 러시아산 자동차의 주요 수출 모델은 라다4x4, 스코다 옥타비아, 라다 베스타, 폭스바겐 폴로, 기아 리오 등임(아래 그림 참조)

러시아산 자동차 수출 모델 및 주요 수출국('18)



자료: autostat(<https://eng.autostat.ru/infographics/16077/>)

- 5) '19년 통계는 EY의 보고서를 바탕으로, '20년 통계는 Statista(<https://www.statista.com/statistics/1021913/russia-car-export-value-by-vehicle-type/>)를 바탕으로 함
- 6) RusAutoNews.Com 관련 기사 참조(<http://rusautonews.com/2017/09/06/the-government-has-approved-the-strategy-for-the-development-of-automotive-exports-until-2025/>)
- 7) RusAutoNews.Com 관련 기사 참조(<http://rusautonews.com/2020/06/25/state-support-on-automotive-industry-will-exceed-45-billion-rubles-in-russia-in-2020/>)
- 8) "Russia: still supporting exports," Automotive Logistics, 10 March 2020 (<https://www.automotivelogistics.media/finished-vehicle-logistics-2/russia-still-supporting-exports/40308.article>)

● 자동차 생산·조립 공장 등 러시아 내 자동차 산업은 모스크바 지역 및 칼루가주,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중서부 지역에 발달해 있음

- 러시아 최대 자동차사로 라다 시리즈를 생산하는 압토바즈(АвтовАЗ)는 사마라주 톨랴티(Тольятти, 모스크바 남동쪽 약 1,000km 위치)에 본사를 두고 있음⁹⁾
- 러시아 경용차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가즈는 니즈니노브고라드(Нижегород)에 근거를 두고 있음¹⁰⁾
-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전체 자동차 생산의 25%¹¹⁾를 차지하는 핵심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로 한국 기업 현대자동차가 이미 진출해 있으며, 일본계 닛산과 도요타도 진출해 있음
- 이외에 르노 러시아법인인 모스크바에, 우아즈는 올라놉스크¹²⁾에, 카마즈는 나베레즈니에 첼니(타타르공화국)에 각각 생산공장을 두고 있음
- 러시아 서부 이외의 지역에 생산공장이 있는 곳으로는 극동 블라디보스톡이 유일하며, 마쓰다-솔러스가 조립 공장을 운영하다가 최근 엔진까지 생산하고 있음

러시아 내 주요 자동차 생산공장 입지

기업 명	위치	주요 특징
압토바즈(AutoVaZ)	톨랴티(사마라주)	· 러시아 국민차 라다 시리즈 생산 · 사마라주 주도인 사마라 인근에 위치
가즈(Gaz)	니즈니노브고라드 (니즈니노브고라주)	· 러시아 승합차 가젤 시리즈 등을 생산 · 승합차 및 미니버스 등으로 인기가 높음
우아즈(Uaz)	올라놉스크(올라놉스크주)	· 해외에서도 인지도 높은 UAZ-469 등 지프차 시리즈 생산
카마즈(KamAZ)	나베레즈니에 첼니(타타르 공화국)	· 러시아 제1의 트럭 및 버스 생산업체
현대자동차	상트페테르부르크	· 쉐라리스(4년 연속 '가장 사랑받는 대중차'로 선정) 등 생산(연간 20만 대 생산 규모) · 기아차 리오(프라이드)를 위탁 생산
폭스바겐	칼루가(칼루가주)	· 폭스바겐, 아우디, SKODA, 람보르기니 등 생산
닛산(Nissan)	상트페테르부르크	· 2018년 신 모델인 X-Trail 등 생산
르노 러시아	모스크바	· 아르카나(Arkana) 등 SUV 생산
솔레르스 포드 (포드 솔러스)	엘라부가SEZ (타타르 공화국)	· 미국 포드사와 러시아 솔레르스(솔러스) 합작 법인 · 미니밴, 소형버스, 구급차 등을 생산
마쓰다솔레르스(솔러스)	블라디보스톡(연해주)	· 일본 마쓰다와 러시아 솔레르스(솔러스) 합작 법인 · 2019년부터 엔진 생산

자료: 내외신 관련 보도 및 해당사 공식 웹사이트를 종합하여 필자 작성

9) 사마라주의 주도이자 러시아 10대 도시 중 하나인 사마라(Самара, '19년 기준 인구 115만 명)와 인접해 있음

10) 니즈니노브고라드는 모스크바 동쪽에 위치한 러시아 5대 도시('19년 기준 인구 약 125만 명)로 모스크바 및 수도권에 직통으로 연결됨. 볼가강과 오카강 상에 위치하여 러시아 서부의 교통 요지로 꼽힘

11) '18년 1월 기준(RusAutoNews.Com 기사 참조)

12) 우아즈(УАЗ)는 올라놉스키자동차공장(Ульяновский Автомобильный Завод)의 출임일이며, 지프차(UAZ-469) 생산으로 유명함

● 현재 러시아의 자동차 물류 인프라 구축 방향은 러시아산 자동차 및 부품 수출 경쟁력 향상, 러시아 내수 시장 공급망 확충으로 모아지고 있음

- 러시아 자동차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자동차 수출시 물류 보조금을 지원함
-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¹³⁾ 출범 이후,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등의 수출 특수를 노리고 있음
 - 카자흐스탄의 베스트셀러 승용차는 러시아산 라다로 '19년 기준, 22%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으며,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로도 러시아산 차량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
- 러시아측은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정상화시 우크라이나로의 자동차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- 현재 러시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은 전용화차를 이용한 철도 운송으로 이뤄지고 있으나, Gefco 등 물류기업들은 자동차 운반선 확보 등 '자동차 수출 능력'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

● 러시아 내 자동차 생산공장이 서부에 집중된 까닭에 러시아산 자동차의 수출 선적항도 상트페테르부르크항 등 러시아 서부에 집중되어 있음

- 러시아 자동차 선적항은 북서부의 상트페테르부르크항, 남부의 노보로시스크항, 아조프해의 카프카스항이 꼽히고 있음
- 상트페테르부르크항은 아프리카, 남미 향 수출 화물의 선적항이며, 현대글로벌비스 러시아법인이 진출하여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및 수출을 연계함
 -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는 트럭킹을 통해 모스크바, 볼가, 폴란드 등으로 운송되며,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으로는 철도를 이용함¹⁴⁾
 - 상트페테르부르크로부터 모스크바까지 트럭킹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7시간임
 - 현대글로벌비스는 완성차 및 부품, 철강코일을 취급하고 있으며, 완성차는 해상으로 운송하는 반면 자동차 부품(에프터 서비스용)은 블라디보스톡-상트페테르부르크간 시베리아횡단철도(TSR)를 이용하고 있음
 - 향후 현대자동차는 EAEU 회원국인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으로 OEM 방식의 수출 확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¹⁵⁾
- 흑해 동북해안의 체메스만에 위치한 노로보시스크항(크라스노다르주)은 북서부 상트페테르부르크항과 함께 아프리카, 남미 향 수출 화물 선적항으로 기능함
- 카프카스항은 자동차 수출 물동량이 적지만 향후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Lorus SCM 등 일부 물류기업에 의해 로-로 서비스가 시작됨
 - Lorus SCM은 4PL을 표방하는 러시아 물류기업으로 극동에서 블라보스톡의 마쓰다-솔러스 공장을 고객으로 한 컨테이너 터미널도 운영하고 있음(처리 능력: 20만 TEU)¹⁶⁾
- 자동차 운송 전용선 라인은 한국의 유코카케리어스와 스웨덴 기업 왈레니우스월헬름센션 등이 현재 러시아 서부 항만과 유럽 항만을 잇는 서비스를 하고 있음

13) 옛 소련권 국가들의 경제통합을 위해 2015년 5개국(러시아, 카자흐스탄, 벨라루스, 키르기스스탄, 아르메니아)을 회원국으로 하여 출범. 관세동맹 체결을 통해 회원국 상호간 무역·투자가 원활해짐

14)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(2017.3) 참조

15) AutomotiveLogistics, "Russia: still supporting exports," March 10, 2020(<https://www.automotivelogistics.media/finished-vehicle-logistics-2/russia-still-supporting-exports/40308.article>)

16) Lorus SCM 웹사이트 참조(<https://lorus-scm.ru/en/>)

- 러시아는 내부 공급망 확충을 위해 전국 철도망과 연결된 '교통물류 거점'(Транспортно-логистические центры) 계획을 연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자동차 물류 관련 현지 진출 기업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
 - 동 계획은 2019년 수립된 것으로, 목표연도는 2024년까지임
 - 계획의 핵심 내용은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한 물류 거점 확충으로, TSR 및 중국횡단철도(TCR)와 연계되어 있으며, 대부분의 물류 거점은 자동차 생산거점과 중복됨(아래 그림 오렌지색 지명 참조)
 - 한국의 입장에서 자동차 부품 공급 등과 관련하여 ②번 회랑(국제 동서교통회랑)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(현재 이용 중. 블라디보스톡-우수리스크-모스크바-상트페테르부르크)
 - 내수시장 및 서유럽 시장으로의 확대를 위해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칼리닌그라드의 성장 가능성이 있음
 - 향후 벨라루스, 카자흐스탄 등 EAEU 국가로의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③번 회랑(국제 유럽-중서부회랑)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

러시아의 국제교통회랑과 연계된 교통물류 거점 확보 계획(개요)



자료: 러시아연방 교통부(2019) 자료 일부 수정하여 필자 작성

주: 오렌지색 지명 표시 중 사마라는 압토바즈의 톨리아티 생산공장을 대신함

해상물류 공급사슬협업과 항만성과의 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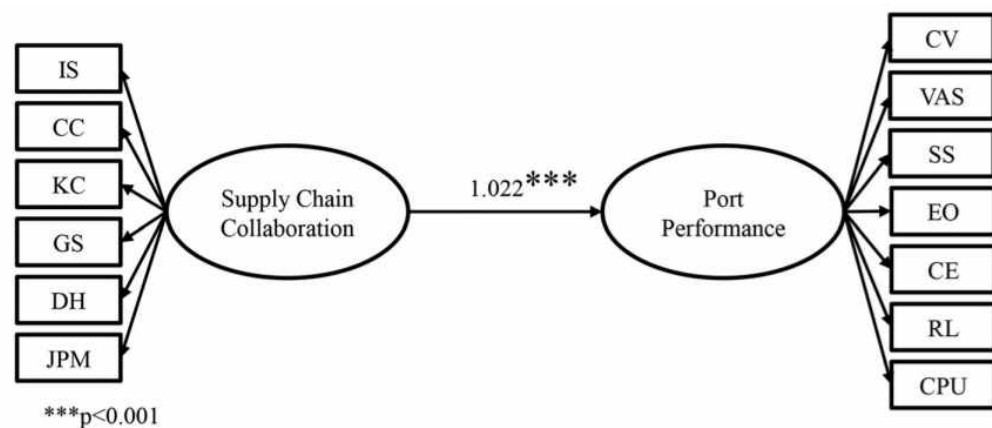
무엇을 왜 연구했는가?

- ▶ 해양산업 분야의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항만과 항만 사용자 간의 공급사슬 협업(Supply Chain Collaboration, 이하 SCC)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함
- ▶ 본 연구는 해상물류 상황에서 공급사슬협업(SCC)과 조직간 협업 이점(collaborative advantage) 그리고 해상물류 협업과 항만성과(port performance)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음
- ▶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우리나라 해운·물류기업을 대상으로 178개의 응답을 받은 웹 기반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모델(SEM)을 활용하였음

무엇을 발견했는가?

- ▶ 본 연구는 2단계로 나누어 분석했으며 1단계는 직접모형으로서 공급사슬협업(SCC)이 항만성과를 향상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

공급사슬협업이 항만성과에 미치는 영향 [직접모형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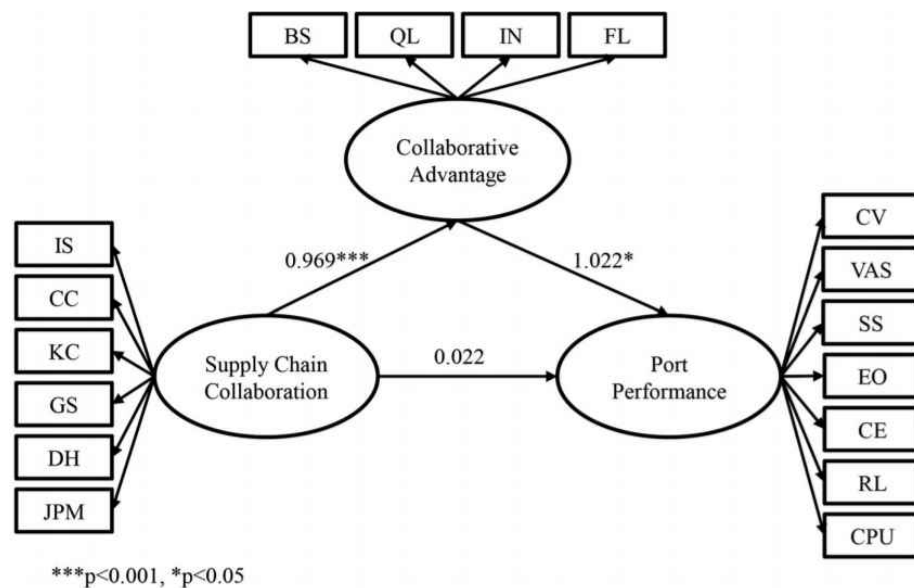


- ▶ 2단계는 조직간 협업 이점(collaborative advantage)을 매개변수로 추가한 모형으로서 공급사슬협업(SCC)이 조직간 협력의 이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항만 성과를 개선

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

- 조직간 협업 이점은 제시된 모형에서 완전매개변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

공급사슬협업과 조직간 협업 이점 그리고 항만성과 간의 관계



연구결과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?

- 조직간 협업 이점에 대한 공급사슬협업(SCC)의 중요한 역할을 발견했으며, 이는 결과적으로 항만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
- 아울러 항만 및 항만 사용자가 더 많은 협업 이점을 획득 할 경우 연결성, 부가가치 서비스, 안전 및 보안, 효율적인 운영, 비용 효율성, 안정성 및 편의성과 같은 더 나은 항만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짐한다는 점을 제시하여 공급사슬 참여자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

자료: Seo, Y. J., Dinwoodie, J., & Roe, M. (2016). *The influence of supply chain collaboration on collaborative advantage and port performance in maritime logistics*. International Journal of Logistics Research and Applications, 19(6), 562-582.

2021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

〈2021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〉

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와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장려하고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“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「해운-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」과 「화주-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1년 5월 3일
해양수산부장관

1. 모집기간 : 2021년 5월 3일(월) 09:00 ~ 5월 28일(금) 18:00 까지
2. 대상사업 : 「해운-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」 및 「화주-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」
3. 제출방법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(www.kmi.re.kr)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정보포털(withlogis.co.kr)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
4. 문의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 - 최나영환 센터장(051-797-4770, chnayoung@kmi.re.kr)
 - 김동환 연구원(051-797-4913, kdong@kmi.re.kr)

* 2021년도 1,2차 모집 선정기업 3차 모집 지원가능(당해 연도 단일 기업 최대 2건 한정)

※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('21.05.03~)

- 유튜브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 채널(<https://www.youtube.com/channel/UCzU7uOfuXJVd9VeJPk0IAeg>)을 통해 실시